

◇ 숲은 생명을 보호한다. 삭막한 도시를 숲과 나무와 꽃으로 전원화 하는 일이 시급하다.

생명의 조화

식물들은 어머니인 자연이 모든 인류에게 베푸는 위대한 혜택이다. 식물들은 음식, 가구, 의약, 도구, 천연자원 등을 제공하지만 아니라 더러워진 공기와 물을 정화시킨다.

과 숲의 보호는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불교적 가르침과 무지함의 이념은 식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여 생명의 아름다움을 고양시키는 원천이다.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의 욕망의 숲을 자르고 자연의 숲을 보존하길 원했다. 진리를 깨달은 아라한들은 숲·나무·강·연못을 마음에 드는 명상장소로 택했다. 테라기타(장로)는 "욕망의 민족을 추구하는 자는 아름다운 나무들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거룩한 자들은 숲속에서 살기를 좋아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37 <결>

현대의 생태학자들의 이념은 2천5백년전의 부처에게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부다는 출세간적 진리만을 설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생태적

질가에 우물을 판다는 기록까지 볼 수 있다. 자연속에서의 모든 생명현상의 조화는 명상이라고 하는 정신적 고양을

대문명은 커다란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인공위성에서 본 세계의 주요도시를 지구라는 암환자의 암세포처럼 검붉게 퍼져가고 있다. 지구는 더이상 푸르고 아름다운 별이 아니다. 지구의 암세포속에서 살고있는 우리의 마음도 더이상 푸르고 아름답지 않을뿐만 아니라 갖가지 욕망으로 가득차서 검붉은 숲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욕망의 숲을 자르라는 욕망의 소멸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태적으로 볼 때, 소극적인

“이제는 ‘숲’으로 돌아가자”

자연은 안식처... 욕망 제거·동식물 보호를 '대도시는 지구 암세포'... '전원화'만이 살길

인 차원에서 생명현상의 보존에 관하여 역설하였다. 쌍둥이끼리에서는 나무를 심고 숲을 기르고 공원을 조성하고 다리를 만들고 길을 닦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공력을 쌓는 것인가를 설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나중에 아쇼카왕은 모든 생명현상을 고양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아쇼카왕은 식물의 보호는 모든 동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정신적 고양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르나르비문에서는 인간과 동물에 유익한 약초를 심고

위한 기본적 토대가 된다. 인간의 무지에 바탕을 둔 의도적 사유가 만들어낸 환경오염의 혼돈과 죽음은 현대 산업사회의 기계-시멘트 문화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혼돈속에서 생명의 질서를 찾아 그것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연을 우리의 생활속에 다시 실현시키는 길밖에 없다. 욕망의 숲을 사르고 자연의 숲을 보호하는 길이다. 자연의 숲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안식처이므로 바로 생명의 숲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도시 중심의 현

가르침이 아니라 암세포의 소멸을 수반하는 생명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현대문명의 반생명적인 암세포의 문화를 소멸시키는 길은, 그것의 수반적 자유로써 우리의 주거공간, 작업장 나아가서는 도시전체를 숲과 나무와 꽃과 식물로서 전원화하는 일이다. 그래서 각종 공해를 흡수하고, 생명현상의 조화를 통해 불필요한 욕망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해 집착적으로 자연이 부여한 생명의 숲으로 되돌아가는 길 뿐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 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최근들어 신행단체의 재가 불자들이 대상으로 사경법회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사경하는 행위자체가 참회요 염불이요 기도요 참선이란 것이다. 때에 행위자체가 중심의 표현이며 생활인 점이 재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 늘 날 인 쇄 술 의 발달로 인해 경전을 사경한다는 것은 단순

자한자 되새겨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사경하는 행위자체가 참회요 염불이요 기도요 참선이란 것이다. 때에 행위자체가 중심의 표현이며 생활인 점이 재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 늘 날 인 쇄 술 의 발달로 인해 경전을 사경한다는 것은 단순

금주의 주제

사경하기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각인 '1字3拜' 정신으로 쓰면 그대로 염불·참선

이 경전을 필사 배포한다는 예전의 뜻은 많이 퇴색했다. 이젠 신의 수행 또는 정진을 위한 신행의 방편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한달간 금강경 사경기도에 들어간 보명화보살(대구 산격동)은 "그 동안 불교에 입문하여 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사경은 시간이 나는대로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한자한자 쓰며 경전을 익힌다는 점에서 마음이 뿌듯하다"며 "이번 금강경 사경기도에 너무나 환희심이 생겨 다른 경전의 사경기도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경이란 경전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권한다. 예전의 '1자 3배'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경하기 전에 염불과 축원 등 의식이 병행된다면 사경하는 의미는 한층 더 값질 것이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요즈음 우리 주위엔 벌써부터 명년 회, 연말연휴 여행계획 등으로 떠들썩하다. 연말을 취미생활이나 여행 등으로 떠들썩하게 보내는 것도 생활의 재충전을 위해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사찰에서 도반과 함께 또 강연에서 가족과 함께, 법의 창고인 경전을 간가지 선택 해 사경하는 것도 한해를 의미있게 마무리하는 좋은 지혜일 것이다.

신행수첩

멋진 삶을 누들이요 조계사 생활·문화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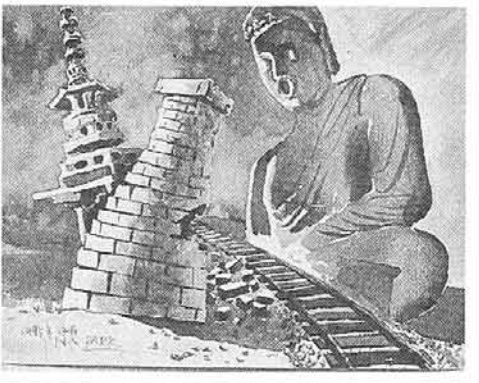
이제부터는 올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계획으로 또 다른 한 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하는 시간이다. 모든 준비가 그렇듯이 자신

의 삶을 살찌우고 보다 알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수놓을 것인가가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다. 조계사가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런 고민을 해소시켜줄만한 문화강좌를 개최한다. 오는 1월8일부터 열리는 이

번 문화강좌는 3개월 과정으로 불화그리기를 비롯 서예, 사군자, 동양화, 관소리, 단소, 남도민요 등 우리 얼이 담긴 전통문화강좌가 선보인다. 또 색자공예, 흥패션, 다도, 꽃꽂이, 토탈 메이크업 등 자신과 자신의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교양강좌도

고수철 경주동과반대지상전 무너지는 소리 박승순작

◇ 1962년 충북 청원에서 태어나 중앙대 예술대학과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40여 차례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진 중견작가이다. 민족미술협회회원으로 활동하며 '민중의 아시아' '시련과 아픔의 세월' 등을 통해 현실과의 평평한 긴장관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동지는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긴 날로 고대인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축제를 벌여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올렸다.

동짓날에는 또 관죽을 우려 나뉘 먹는 풍습이 있는 데 이는 동짓날 죽어서 역신(疫神)이 된 망나니가 평소 팔을 두러워 했기 때문에 악귀를 쫓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의 <형초세기>는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세시풍속이 불교와 결합하면서 불교에서는 동지를 보시를 실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풍속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부친 석왕사(주지 영담, 032-663-7771)는 동짓날인 22일 지역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팔죽공양' 자비 넘치는 따뜻한 세밀 22일 동지... 절마다 법회·이웃돕기 등 '잔치' 풍성

5개 양로원을 방문해 경로잔치를 베풀는다. 또 광명선원(주지 초격, 584-1108)은 신도가족과 지역주민을 초청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송년모임행사를 갖는다.

법연사(주지 현호, 733-5322)는 새 로 신축한 영산대법전 법당에서 이주(移住)법회를 봉행하고 새출발의 의미를 다진다. 이외에 각 지역 대부분의 사찰에서도 동지법회를 열고 지역민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시간으로 정착시켜가고 있다.

함께 열린다. 이외에도 2개월 과정의 선체조와 1개월 과정의 한국무용 등 다양한 강좌가 함께 열려 각자 개인의 취미에 맞는 강좌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강좌는 방학을 맞은 자녀들이나 부부가 함께 하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02)732-2115

보기드문 3층대웅전 터사랑 쌍봉사 문화기행

값진 문화재를 3점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불려온 교통 탓에 찾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 진가를 널리 알리지 못하고 있는 고찰이 있다. 전남 화순 증조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쌍봉사. 쌍봉사일

오르다 보면 멀리서도 한 눈에 들어오는 특이한 구조의 대웅전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 대웅전(보물 제163호)은 중기 이조의 건물로 사각석단을 쌓고 약간의 체감하여 삼층을 올린 것으로 특이한 외형과 섬세하고 우수한 수법을 자랑한다.

절 뒷편에는 칠감선사암(국보 제57호)과 칠감선사암비(보물 제170호)가 있는데 칠감선사암은 전형적인 신라부도로서 지극히 화려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토순례모임 터사랑이 오는 23, 24일 송광사, 운주사, 그리고 이곳 쌍봉사로 국토문화기행을 마련했다. 쌍봉사에 가기 전에 둘러볼 만한 곳은 화순 이양면에 소재 한 송석정과 150m 높이의 청룡색 단애 적벽(赤壁) 등으로 쌍봉사로 가는 길을 흥겹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02)725-1284

역업보다 사랑의 품으로 청교련, 비행청소년수련회

비행청소년, 요즘 부쩍 학원 폭력 등으로 인해 우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단이다. 그러나 그들을 무작정 적대시 하고 억압속으로 치밀어 넣을 수밖에 없다. 부패와 단절된 정(情)에 삭막해져가는 이 사회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미래사회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미래사회로 선도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순간의 실수로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한 이들을

얼마나 따뜻한 가슴으로 감싸고 순화시키느냐는 중요한 문제 아닐 수 없다.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가 오는 27일부터 29일 까지 보호관찰자를 대상으로 '너와 나 우리 하나되어'는 라는 캐치프레이즈의 수련회를 마련, 비행청소년들 선도에 앞장선다. 인천 강화청소년수련원에서 무료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불교계가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건전하게 여가를 보내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032)888-3228

감명깊었던 일은 평생 가슴속에 남아 인생의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해맑은 웃음과 웅대한 꿈으로 가득찬 어린이들을 위해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삼전복지관(관장 보카스님)이 매주 화·목요일 색종이 접기교실을 연다. 유아에서부터 국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색종이접기교실은 벌써부터 어린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발상 노랑 파랑색 등의 색종이를 가위, 풀, 자등을 이용해 마음껏 자르고 붙여서 비행기도 만들고, 왕관도 만들고, 예쁜 옷도 만들어 볼 수 있다. 특히 색종이접기교실은 멋지고 예쁜 친구들도 사귀실 수 있어 더욱 재미있고 유익하다. (02)421-6077

생활 속의 불교 54

그물처럼 얽힌 삶의 관계 속에서

누구나 다 나라 잘 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다 내 직장, 내 가정 잘 되기를 원한다. 내 나라 내 직장 내 가정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잘 되는 경우보다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느껴진다. 무슨 까닭인가? 불가에서는 그 원인을 무명(無明)에서 찾는다. 무명이 탐·진·치 삼독심(三毒心)을 낳고 삼독심은 온갖 번뇌방향을 빚어내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고(苦)의 바다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을 무명이라 하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 상호관계의 산물이라서 그 관계의 그물을 벗어나서는 한 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것을 무명이라 한다. 다시 말해 '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를 고집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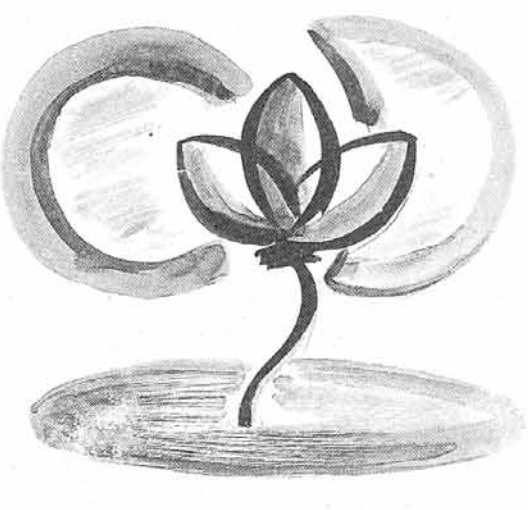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 생명체로서의 당연한 욕구인 생존·생리의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확인, 자존자의 욕구가 있다. 이런 욕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그런 욕구가 있느니 없느니 따질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누구나 다 내 생명의 소중함이 당연스럽고 내 이익, 내 감정에 애착을 갖게 마련이다. 고로 '나'를 앞세우고 '나'를 찾대로 살아 세상을 상대하고 사물을 평가하는 행위를 나무랄 수는 없다. 따라서 '나'를 고집하는 게 무명이요 그 점이 바로 잘못되기를 바라지만 잘못되는 원인이 된다 해도 개개인으로서서는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 보면 우리는 금세 '나'를 고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있는 나를 되돌아 보자. 이

원고지·연필·책상·의자, 이 사무실·건물, 이 도시·이 땅·이 지구... 이런 것들이 없다면 글을 쓰는 나도 없을 것이다. 아니, 내 부모, 내 부모의 부모 조상들이 없다면 지금 이 글을 쓰는 나 또한 없을 것이다. 내가 쓰고 있는 이 한 장의 원고지도 또 종이 원료인 펄프를 공급하는 저 삼림의 수목과 연결되어 있고 수목은 토양과 비극물, 바람, 태양열과 이어져 있다.

나의 아침 식단-쌀밥, 생선·채소·고기 등은 내 생명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원이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나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일체의 생명체, 일체의 무정물들과 고리에 고리로 이어진 체로 살고 있다. 그런 연쇄의 고리 속에서만 비로소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상호보완의 관계 속에 있다. 그 관계는 마치 그물과 같아서 개개인이란 하나의 그물코에 불과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그 관계성을 잊고 산다. 아니, 본래 관계의 그물 속에서만 비로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 모를 뿐 아니라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기까지 한다. '나'만을 고집하고 내 존재, 내 이익, 내 감정에만 집착한다. 그물을 끊는 행위가다. 그러니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게 된다. 관계의 그물에 대한 바른 이해-그것이 곧 불행, 갈등을 풀어나가는 열쇠이다.



협찬: 대전지원

사람과 사람 사이는 더 복잡한